

# 기억과 의식\*

## Memory and Consciousness

김정호†  
Jung-Ho Kim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억과 의식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기억과 기억의식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기억 수행은 있으나 기억의식이 없는 현상을 다루고, 다음으로 기억표상은 없으나 기억의식이 있는 현상을 다루었다. 각 현상은 뇌손상이나 최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특수한 경우와 일상적인 경우 모두 기억과 기억의식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며, 기억표상이 기억의식에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님을 보았다. 끝으로 기억과 기억의식의 독립성의 맥락에서 기억의식이 우리의 일상적인 정보처리에서 갖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특히 기억의식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관련하여 자기의식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기억, 기억의식, 암묵기억, 기억착각, 자기의식

---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Ssangmun-dong Dobong-gu Seoul  
132-714 Korea

\* ) 본 연구는 1996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본고를 읽고 비평해 준 김미라 선생과 김선주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memory and consciousness, especially the independence between memory and memory consciousness. First, the phenomena of memory performance without memory consciousness, next the phenomena of memory consciousness without memory representation are dealt with. They are examined both in special cases (e.g., brain damaged patients, under hypnosis, etc.) and in normal cases. In both case, we can find that memory and memory consciousness are independent each other and that memory representation is neither necessary nor sufficient conditions for memory consciousness. Lastly, the roles of memory consciousness in our daily information processing are dealt with.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memory consciousness in normal social life and the problem of self consciousness are discussed.

**Keyword** memory, memory consciousness, implicit memory, memory illusion, self Consciousness

### I. 서론

잃어버렸던 심리학의 주제인 의식 (consciousness)의 문제가 최근에 심리학의 주요한 주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19세기 말 심리학이 철학에서 독립하여 과학으로 처음 출발할 때 심리학의 주제는 의식이었다 (85). 그러나, 중요하게 사용된 방법론인 내성법 (introspection)의 문제로 인해서 연구의 객관성이 도전받게 되면서, 심리학의 주제가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행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1920년대 부터는 많은 심리학자들

이 행동을 심리학의 주제로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따르게 되었다. 그후 1950년대 말부터 인간의 행동을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지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구조와 과정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 그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구조와 과정의 모형을 구성하고 그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지심리학의 출현으로 의식의 문제가 심리학에서 다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인지심리학에

서 다른 내적인 구조와 과정에는 주관적인 의식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지심리학에서 의식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였다 [17] [42] [49] [50] [53] [73].

인지심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의식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의식과 정보처리의 독립성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또다른 하나는 정보처리에서 의식의 역할의 문제이다. 의식과 정보처리의 독립성이란 정보처리에 반드시 의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처리는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9].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보처리라고 할 수 있고, 일반인의 경우 그러한 정보처리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식은 우리의 정보처리를 모두 반영하지 않으며, 적지 않은 경우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 어떤 정보처리는 의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처리는 원천적으로 의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통 전자는 정보처리의 결과 혹은 내용이고 후자는 정보처리의 과정이다. 예를 들면, 말을 듣고 이해할 때, 말자극에 어떤 처리과정이 관여했는지 의식할 수는 없지만, 그 처리의 결과인 목소리의 특징이나 그 말의 의미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말자극의 처리과정은 결코 의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보처리의 결과는 의식이 가능하지만, 때로는 의

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역하지각(subliminal perception)의 경우에 특정 자극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자극의 내용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34].<sup>1)</sup>

정보처리와 의식의 독립성은, 이상에서 예를 든 것처럼, 주어진 자극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작업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의 결과로 나타난 기억이 작용할 때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예를 든 역하지각의 경우는 자극의 지각과 이해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도 정보처리와 의식의 독립성을 보여준다. 역하로 제시된 자극을 보지 못한 것은, 처리는 되었지만 그 처리내용을 의식 혹은 자각하지 못했음을 말한다. 한편, 나중에 그 처리내용이 행동에 영향을 준 것은, 비록 역하로 처리되었으나, 처리자의 마음에 기억흔적을 남긴 것이고, 그 기억

1) 역하지각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역하지각의 효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의 해석에 문제가 있거나, 연구결과가 나중에 반복해서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역하지각에 관한 많은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역하지각을 통해 명백한 행동 (특히 추동 (drive)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33] [63] [64]. 그러나, 역하지각을 통한 지속적이고 명백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행동은 미묘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4]. (이러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본문의 Kunst-Wilson & Zajonc (1980)를 참조 [55].)

흔적이 나중에 작용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내용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하지각 현상 뿐만 아니라 여러 기억현상에서 우리는 기억내용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기억을 반영하는 행동을 보인다. 즉, 기억내용을 물어보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가지 반응지표를 통해 볼 때 그 기억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억현상은 일반적으로 암묵기억 (implicit memory)이라고 부른다 [75]. 암묵기억은 외현기억 (explicit memory)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외현기억이 의도적으로 인출되는 기억 혹은/그리고 의식이 되는 기억을 말한다면, 암묵기억은 의도적으로 인출되지도 않고 의식을 수반하지도 않지만, 여러가지 수행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기억을 말한다 [76]. 암묵기억의 연구는 기억상실증 환자들의 증상을 통한 연구에서 비롯하여 최근에는 일반인의 기억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2] [10] [11] [12] [13]. (참고적으로 'Consciousness and Cognition'에서는 1995년 (Vol. 4, No.4)과 1996년 (Vol.5, No.1/2)에 걸쳐 암묵기억에 대한 특집을 싣고 있다.) 암묵기억 현상은 기억과 의식 간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억과 의식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암묵기억의 경우에는 기억표상을 반영하는 기억수행은 있으나 그것에 관한 기억의식은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기억표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부 뇌손상 환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작화 (confabulation)가 있다. 기억표상은 없으나 기억의식을 갖는 경우와 유사한 현상으로 기억왜곡현상도 있다. 기억왜곡은 초기의 경험에 따른 기억흔적 혹은 기억표상이 나중에 시간과 함께 또는 다른 경험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며, 기억왜곡에 상응하는 기억표상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왜곡 역시 결국 경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기억의식을 갖는 경우이다. 이 두가지 모두 결코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기억착각 (memory illusion)이라고 불린다.<sup>2)</sup> (참고적으로 (Roediger (1996)는 기억착각이란 과거 사건에 대한 보고가 실제의 사건과 심각하게 (seriously) 다른 경우라고 정의할 수

2) 작화의 경우에도 작화내용의 부분들은 기억표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을 제안해준 김미라 선생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부분들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총체 (혹은 일화)로 볼 때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의 표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억표상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있다고 하였다 [72, 76쪽].) 기억착각 현상은 과거에는 작화와 같이 특정한 뇌손상 환자에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정상인에게도 발견되는 유사한 현상 역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회상검사서 부적절한 것을 회상하거나, 재인검사서 학습하지 않은 것을 학습했던 것으로 재인하는 것을 단순히 실수반응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 자체를 기억착각과 관련하여 기억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참고적으로 'Journal of Memory & Language' (1996, Vol.35, No.2)에서는 기억착각에 대한 특집을 실고 있다.)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은 정상인에게 일상적인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기억은 있으나 기억의식이 없는 경우나 반대로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의식을 보이는 경우 모두 뇌손상이나 최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보다 명백하고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특수한 경우를, 다음에 일상적인 경우를 통해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을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억과 기억의식의 독립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기억과 의식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기억과 기억의식이 독립적인 현상이라면, 과연 기억의식이 우리의 일상적인 정보처리에서 갖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II.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 기억의식이 없는 기억수행

### II.1. 특수한 경우

#### II.1.1. 뇌손상에 의한 기억장애의 경우

##### 1. 전진성 기억상실증

전진성 기억상실증 (anterograde amnesia)은 뇌손상 이후 새로운 학습에 결함을 보이는 장애이다.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뇌손상 이전의 기억은 대체로 온전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뇌손상 이후에 경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들도 뇌손상 이후에 새로운 학습에 따른 기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그 기억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에 대한 연구는 기억에 있어서 의식의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켜 주었다.

전진성 기억상실증은 코사코프 증후군 (Korsakoff's syndrome) 환자, 단순포진성 뇌염 (herpes simplex encephalitis) 환자, 및 측두엽 손상 환자에게서 발견된다. (이 환자들의 뇌손상에 대한 설명은 본 특집호의 김문수 (1996)를 참조 [1].) 이들이 보이는 증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또한 동일집단으로 분류되는 환자들도 뇌손상부위의 차이로 약간씩 증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

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바로 전진성 기억상실증과, 정상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단기기억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해서 이들은 뇌손상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에는 지장이 없으나, 약간의 시간만 지나도 방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들은 새로 사람을 소개받고 장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 사람이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소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위와같은 전진성 기억상실증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증거는 이들이 뇌손상 이후에도 새로운 경험을 기억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억을 결코 의식으로 알지는 못한다. 즉, 기억수행은 있으나, 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억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한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기억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기술하는 현상들이 모든 전진성 기억상실증에서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진성 기억상실증으로 진단되더라도 뇌손상의 부위가 차이 나는 등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 현상 자체에 초점을 두므로 이들 현상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다루었다.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상당히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지각기술 (perceptual skills)을 새로 습득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거울상으로 역전시킨 글을 읽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29). 또한 운동기술 (motor skills)도 습득할 수 있었다. (대개의 경우 운동기술에는 감각과 운동의 협응이 중요하게 포함된다.) 예를 들면, 거울을 보면서 선을 그리는 수행에서 학습효과를 보여 주었다 (60).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다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의 해결도 기억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한 쪽 막대에서 다른쪽 막대로 디스크를 옮겨 쌓는 절차가 필요한 하노이탑 문제의 해결을 기억할 수 있었다 (28).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깨진 그림 (broken drawings) 과제와 같은 지각학습 (perceptual learning)에서도 학습효과를 보여준다 (61) (81).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뇌손상 이후에 공간에 대한 학습을 할 수도 있다. 코사코프 증후군 환자인 한 중년여성은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기관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돌아다녔다. 예를 들어, 화장실의 경우에,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물어보면 몰라도, 찾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다 (27).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단어학습의 효과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Graf, Squire, & Mandler (1984)에서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4-7개의 철자로 구성된 단어를 보고 그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38]. 이러한 처리 후에, 환자들에게 네가지의 기억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 세가지는 전통적인 기억검사로 자유회상검사, 단서회상검사, 및 재인검사였으나, 마지막에 실시한 나머지 한가지 검사는 단어완성검사였다. (단어완성검사에 대해서는 본 특집호의 김미라와 이만영 (1996)을 참조 (3).) 이 연구에서 기억에 대한 의식이 요구되는 (즉, 의식적 또는 의도적 인출이 요구되는) 전통적인 기억검사로 측정했을 때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기억에 대한 의식이 요구되지 않는 (즉, 의식적 또는 의도적 인출이 요구되지 않는) 단어완성검사에서는 정상집단과 동일한 기억수행이 관찰되었다. 단어학습의 단어완성과제에서와 유사한 효과가 그림자극을 통한 점화효과에서도 관찰되었다 [37]. 또한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정서와 관련된 수행에서도 의식이 접근되지 않았지만 학습효과를 보였다 [47].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는 들려준 이야기에 대한 기억도 보유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위에서 인용한 중년여성은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신문에서 여러가지 기사를 읽어주고 3분 정도 지난 후에는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엇을 읽어주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정 질문을 해보면, 신문기사의 몇가지 상세한 내용을 마치 반사행동을 하듯이 방출

하였다. 이때 그녀는 이러한 내용을 자신이 기억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 단지 우연히 자신의 마음에 떠올랐다고 말한다. 또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거나, 그 당시의 상상의 산물이라거나, 혹은 숙고의 결과라고도 말한다 [27].

이상과 같이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새로운 기억을 할 수 있음이 밝혀졌으나, 이들의 기억수행에는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의식하지 못한다. 새로운 학습에 따른 기억효과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학습을 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다. 학습했던 과제를 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한다. 학습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물도 기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학습을 하고 난 후, 다음 날 어제 수행한 과제에 대한 기억을 물어 보면,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과제에 쓰인 자극재료나 도구에 대해서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과제를 수행시켜 보면 그전날 학습했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기억은 하고 있으나, 그 기억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그 기억에 의식이 접근되지 않는 것이다.

## 2. 실인증

실인증 (agnosia)은 사물을 지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현상을 말

한다. 사물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각과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을 과거의 기억체계 (혹은 지식체계)에서 재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인증은 지각은 정상이나, 기억에 장애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본다면, 실인증은 지각과 기억의 독립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실인증의 경우에는 대상을 상당히 알고 있는 것으로 행동하지만, 즉 어느 정도의 기억수행을 보이지만, 그 기억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인증의 대표적인 경우인 시각 실인증 중에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과 관련된 얼굴실인증 (prosopagnosia)과 연합적 시각실인증 (associative visual agnosia)을 다룰 것이다. 시각 실인증은 사물을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얼굴실인증:** 얼굴실인증 (prosopagnosia)은 측두엽과 후두엽의 아랫부분의 양측 손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다. 얼굴실인증은 자신에게 친숙한 사람의 얼굴을 재인하지 못하며, 심한 경우에는 거울 속의 자신의 얼굴을 재인하지 못하기도 한다. 얼굴실인증은 지각과 지각경험의 문제를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얼굴실인증 환자들은 보여준 얼굴을 정확하게 잘 기술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얼굴재인을 제외

하고는 다른 기억에서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들은 얼굴은 재인하지 못해도 종종 그 사람의 목소리, 걸음걸이, 또는 냄새와 같은 다른 단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얼굴실인증 환자들이 친숙한 얼굴의 재인에 장애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의 기억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그들은 친숙한 얼굴과 친숙하지 않은 얼굴에 대하여 생리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친숙한 얼굴을 올바른 이름과 짝지은 경우와 틀린 이름과 짝지은 경우에 생리적으로 다르게 반응한다. 뿐만 아니라, 단어처리시에 친숙한 얼굴을 함께 제시하면, 그 얼굴과 관련된 단어의 처리가 영향을 받는다. (Young & De Haan (1992)을 참조 [86].)

위와같은 현상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얼굴실인증 환자들이 의식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얼굴에 대한 기억과 얼굴과 언어지식 간의 연결이 어느 수준만큼은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은 얼굴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그 기억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기억의 분류법으로 보면, 얼굴실인증은 (얼굴에 대한) 의미적 기억은 남아 있으나, 그 기억의 의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얼굴에 대한 외현기억에는 장애를 보이거나 암묵기억은 어느만큼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합적 시각 실인증: 연합적 시각 실인증 (associative visual agnosia)은, 연합시각체계는 정상이지만, 연합시각체계와 언어체계의 연결부위의 손상으로 나타난다. 연합적 시각 실인증 환자는 사물을 정상적으로 지각하며, 정확하게 보고 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특정 사물을 그려보라고 말로 지시를 하면 제대로 그리지를 못한다. 연합적 시각 실인증 환자가 장님이 아니라는 것은 그가 물건에 부딪치지 않고도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그는 자신이 보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인증 환자는 종종 그 사물과 관련된 행동을 손의 움직임 등을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Margolin, Friedrich, & Carlson (1985)은 연합적 시각 실인증 환자에게 권총 그림을 보여 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손이 하는 행동을 보기 전까지는 그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59].

연합적 시각 실인증 환자는 사물을 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보고 있다는 지각경험도 하고 있다. 이점은 사물을 보기는 하지만 그 지각에 따른 경험이 결여되어 있는 맹시 (blindsight) 환자와 구분된다. 연합적 시각 실인증 환자는 지각한 사물과 연관된 적절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물의 의미도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적어도 그 사물과 관련된 절차적 기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물의 의미 기억 혹은 그와 관련된 절차적 기억에 대한 의식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 3. 정체성 상실

우리가 자기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여 누적한 기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과 그 경험을 자신이 한 것으로 의식하는 것이 독립적일 수 있다.

러시아의 신경심리학자인 A.R. Luria의 환자였던 Zazetsky의 경우에는 좌측 후두-두정엽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인해 여러가지 기능 장애를 보였는데 그중에 기억장애가 포함되었다 (Flanagan (1991) 참조 [36]). 그는 분명히 자신의 막대한 과거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기억을 인출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며, 인출한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올바른 기술인지를 의식으로 재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자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었으나, 후자의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못한채로 남아 있었다.

H.M.과 Zazetsky의 경우는 의식이 자기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Zazetsky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지닐 수 없었다. 그는 30년 가까이 매일같이 자

신의 기억을, 자동적으로 그렇지만 매우 힘들게, 써내려가며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재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막대한 양의 기억을 기술해 내었으나 충분한 재인에는 거의 성공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그의 삶은 의미가 결여되었다. Zazetsky의 경우는 자신에 관한 많은 양의 정보 혹은 기억을 보유하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기억으로 재인 혹은 의식하는 것이 독립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H.M.의 경우에는 뇌수술에 따른 뇌손상 이전의 기억에 대한 의식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적어도 뇌수술 이전에 형성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는 있었겠지만, 경험을 통한 자기 혹은 자기의식의 변화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본다면 기억에 대한 의식이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 II.1.2. 기능적인 기억장애의 경우

### 1. 후취면 기억상실

기억상실은 최면과 관련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최면기억상실(hypnotic amnesia)은 최면 경험과 관련된 기억상실로, 최면동안의 경험이나 학습내용을 기억하는데 실패할 때, 보통 적절한 암시를 제공하거나 다시 최면을 유도함으로써 기억이 되살아 날 수 있게 되는 현상

을 말한다 [31]. 이러한 특성으로 최면기억상실에서의 기억상실은 일시적이다. 최면기억상실은 자발적으로도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기억상실을 유도하는 암시에 의해 나타난다. 최면에서의 기억상실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Hilgard (1965, 1986)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39] [40]: 1) 최면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후취면 회상 기억상실(posthypnotic recall amnesia); 2) 최면동안에 배운 내용에 대한 후취면 회상 기억상실; 3) 최면동안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만, 언제 어떻게 학습했는지 그 기억의 원천을 망각하는 후취면 원천 기억상실(posthypnotic source amnesia); 4) 최면동안의 사건이나 학습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기억상실인 부분적 후취면 기억상실(posthypnotic partial amnesia); 5) 최면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한 최면상태에서의 기억상실. 이상의 최면기억상실은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과 많은 관련을 갖는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후취면 기억상실과 특수한 후취면 기억상실인 후취면 원천 기억상실에 대해서 다뤄 보겠다.

후취면 기억상실에서는 최면 중에 경험한 것에 대하여 망각하도록 암시를 주었을 때, 최면에서 깨어난 후 그 경험을 의식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혹은 여러가지 직접적인 기억검사로는 발견되지 않지만), 의식을 요구하지 않

는 간접적인 기억검사를 통해 그 기억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최면 중에 학습한 재료에 대하여 망각하도록 암시를 주었을 때, 최면이 끝난 다음 학습재료에 대하여 회상 검사로 측정하면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각확인(perceptual identification)과제(일반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맞추는 과제)나 단어완성과제와 같은 기억의식을 요구하지 않는 간접적 검사에서는 최면 중에 학습한 재료가 영향을 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1] [52].

후최면 기억상실 중에 후최면 원천 기억상실에서는 경험 혹은 학습에 따른 기억이 남아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적절한 기억의식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면 ([30] [35]), 최면상태에서 피최면자들이 잘 모르는 지식(예, 지구의 직경, 싱가포르의 인구 등)을 질의응답식으로 가르쳐 준다. 나중에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피최면자들이 정확한 답을 하는데, 그 지식을 최면동안에 얻었다는 것은 모른다. 정답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다소 당황하며 어떻게 알았는지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얘기를 해주었다거나, 어디선가 읽은 것 같다는 등 나름대로 둘러대는 답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진성 기억상실에서 소개한 코사코프 증후군의 중년여성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후최면 원천 기억상실에서는 최면이 끝난 후에, 피최면자가 최면동안에 미리 암시한 단서에 따라서 특정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피최면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23] [24]. 일반적으로 최면 후에 특정 단서를 제공하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암시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암시내용을 잊어버리도록 암시를 한다. 이와같은 암시와 함께 최면에서 깨어나도록 하면, 피최면자는 최면동안에 이루어진 암시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최면에 걸리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최면 중에 말했던 특정 단서를 최면자가 제공하면 최면 중에 암시한 행동을 수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최면자는 자신이 한 행동의 진정한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물어보면,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이유를 든다.

이상과 같은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피최면자는 최면자가 제시한 암시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기억에 대한 기억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 2. 해리정체장애

해리정체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DID)는 한 사람 안에 여러개의 독립적인 성격들이 공존하는 심리장애이다. (참고적으로 해리정체장애는 전에는 다중성격장애(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라는 명칭

으로 불렸지만 최근에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해리정체장애로 그 명칭을 고쳤다(14.) 특정 성격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할 때, 다른 성격이 장악하는 동안 경험한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그러한 성격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성격 중에 한 두 성격은 다른 성격들의 존재를 어렵듯이 알고 있기도 한다.

해리정체장애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각 성격들간의 해리로 인해 각 성격동안 경험된 기억들이 서로 전이(transfer)되지 않는다. 즉, 특정 성격이 마음의 전면에 나와있는 동안 다른 성격동안에 경험한 것을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Nissen, Ross, Willingham, Mackenzie, & Schacter (1994)는 이들을 통한 연구에서 지각확인과제와 같은 간접적 기억검사를 통해서 한 성격에서 다른 성격동안 경험한 기억의 전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68).

### 3. 심리적 외상에 의한 기억상실

심리적 외상(예, 심한 성폭행, 공격, 사고, 전투 등)을 겪은 사람들 중에 그 사건과 해리되어 나중에 그 사건을 의식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기억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그 사건

을 의식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유사한 특정 상황이나 그 사건 동안 보았던 특정 사물에 대하여 과도한 공포를 보인다(26). 즉, 이러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경우에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기억에 의식이 접근되지는 않고 있다.

## II.2. 일상적인 경우

기억은 남아 있어서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의식은 결여되어 있는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은 기억상실증이나 최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일상적인 경우에도 기억과 의식의 독립적인 현상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즉, 행위로써 과거의 경험 혹은 학습의 영향이 나타나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것에 대한 기억의식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역하지각의 경우는 지각과 의식의 독립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도 보여준다. 지각경험/의식은 없었으나, 지각이 되었으며, 그것이 나중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을 과거의 경험 혹은 기억으로 알지 못한다. 혹은 그 기억이 행위에 영향을 주지만, 의식의 접근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매우 미묘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일련의 연구는 특정한 자

극을 의식으로 지각되지 않게 제시하여 나중에 그 자극이 제시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자극에 대한 호감 혹은 선호도가 증가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19] [20] [55]. Kunst-Wilson & Zajonc (1980)의 예를 들면, 그들은 여러가지 모양의 다각형을 1/1000초씩 제시하고, 나중에 보여 주었던 다각형들과 그렇지 않았던 다각형들을 보여주면서 각 다각형에 대해 재인검사와 선호도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각 다각형에 대해 보았던 것인지 아닌지는 의식으로 구분하지 못했지만, 앞에서 보았던 다각형에 대해 더 많은 선호도를 보였다 [55].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경험 혹은 학습했던 것인데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의식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은재(隱在)기억(cryptomnesia)이라고도 부른다. 이와 관련해서 비의도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표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본인은 자신이 새롭게 생각한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과거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Bowers & Hilgard (1988)는 Helen Keller의 비의도적인 표절을 소개하였다 [25]. Helen Keller는 그녀가 11살 때 짧은 이야기를 써서 출판했는데, 다른 작가의 작품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그 작가의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하였

다. 그러나, 나중에 가족들의 친구 한명이 3년 전에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수화로 읽어준 것이 밝혀졌다.

기억은 있으나 기억의식은 없는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에 관한 현상은 정교한 실험을 통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Tulving, Schacter, & Stark (1982)는 단어완성검사에서의 점화량과 재인의 용이성 간에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여 기억의식은 없어도 기억수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였다 [80]. Schacter, Bowers, & Booker (1989)에서는 단어완성 검사에서 주어진 단어의 여간으로 앞에서 학습했던 단어가 완성되는지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의식했던 사람들 모두 사전학습에 따른 점화효과를 보였다 [79].

Jacoby & Dallas (1981)는 짧은 시간동안 단어를 제시하고 단어를 맞추게 하는 지각확인 과제에서, 이 과제 전에 미리 한번 보여주었던 것이 단어확인 가능성을 두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하였다 [43]. 이러한 효과는 심지어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났다. 이때 사전에 보았던 단어의 지각확인 확률은 피험자들이 그 단어를 앞에서 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과는 (즉, 기억의식을 갖는 것과는) 독립적이었다. 즉, 앞에서 보았던 것이라는 기억의식은 없어도 그 경험에 따른 기억이 나중에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특이한 것은 동일한 시간동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 보았던 단어에 대해서는, 비록 보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는 못해도, 지각확인과제에서 더 오래 제시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즉, 과거의 경험이 기억의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지각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 II.3. 논의

본 절에서는 기억과 기억의식 간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기억에 따른 기억수행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기억에 대한 의식은 결여되어 있는 현상들을 다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뇌손상에 의한 기억장애, 최면이나 심리적 외상에 의한 기억상실 또는 해리정체장애와 같은 기능적 기억장애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정상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와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기억장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억은 여러가지 속성들 혹은 요소들 (예, 여러가지 기억내용들, 시간적 및 공간적 맥락 등)로 되어 있으며, 이들간의 일반적인 연합 또는 특정한 기억의식에 필수적인 연합이 약화되거나 인출 혹은 둘다의 문제로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거나 인출되지 않을 때, 혹은 특정 연합 또는 특정한 기억의식에 필수적인 연합이 시간과 함께 쇠퇴하거나 다른 경험으로 변형될 때에 여러가지 기억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부분적으로 기억수행은 나타나지만 기억의식은 결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여러가지 기억요소들 간의 불충분한 연합의 유형에 따라 의미적 기억과 관련된 기억의식이 결여되기도 하고 (예, 얼굴실인증이나 연합 시각 실인증) 일화적 기억과 관련된 기억의식이 결여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전진성 기억장애와 기능적 기억장애).<sup>3)</sup> 참고적으로 Bower (1996)는 연합의 유형을 유형1 (모든 기존의 연합들 + 새롭게 약호화된 통합된 지각단위)과 유형2 (지각적으로 구분되는 단위들 간의 일화적 (episodic) 연합)로 나누고 유형2의 연합이 기억의식이 수반하는 기억수행 (즉, 외현기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2].

일상적인 경우의 기억의식이 결여된 기억수행은 약호화시에 충분한 연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와 관련해서 시간과 함께 쉽게 쇠퇴하거나 다른 사건의 간섭 등으로 기억의식이 이루어질 만큼 충분한 혹은 기억의식에 필수적인 연합관계의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약화시의 불충분한 연합형성은 충분하지 않은 약호화시

3) 참고적으로 기억의식의 유형과 뇌부위에 관한 논의는 김정호와 김선주 (1995)를 참조 [9].

간, 주의집중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래의 기능적 원인처럼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자극 등에 대한 억압(repression), 혹은 그 자극의 처리와 다른 인지체계와의 해리(dissociation)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후회면 기억상실이나, 해리정체장애, 혹은 심리적 외상에 의한 기억상실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원인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의식할 만큼 충분한 연합관계의 인출이나 의식에 필수적인 연합관계의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부분적으로는 인출되어 기억의식은 결여되지만, 기억수행을 통해 그 기억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적 원인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암시, 수용하기 어려운 경험 등으로, 특정한 연합관계를 잠정적으로 억압하거나, 다른 기억체계와의 연결을 잠정적으로 해리시킬 뿐이며, 그러한 연합관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경우들에서 적절한 암시나 치료를 통해 해리 혹은 억압이 풀려 기억의식을 할 만큼 충분한 연합이 회복되거나 기억의식에 필수적인 연합관계가 회복되어 기억의식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뇌손상에 따른 기억장애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혹은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특정 기억이 기억의식이 이루어질 만큼 충분한 혹은 기억의식에 필수적인 연합관계가 형

성(즉, 약호화)이 되지 않거나, 쉽게 쇠퇴 혹은 간섭을 받거나, 파괴되거나, 인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의식은 수반하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기억수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뇌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기억의식이 결여된 기억수행은 나중에 치료와 함께 해당 기억에 대한 의식이 다시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코사코프 증후군 환자의 경우 기억상실증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때, 기억상실증 동안에 경험했지만 그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한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54]Korsakoff, 1996/1889). 이러한 경우는 뇌손상에 따른 기억장애가 약호화의 문제보다는 인출의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게 하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일반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 III.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

#### III.1. 특수한 경우

##### III.1.1. 뇌손상에 따른 작화

작화(confabulation)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현재의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비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 내용이 실제와는 다른 거짓이지만 비의도적이기 때문에 Moscovitch (1989)는 작화를 '정직한 거짓말

(honest lying)'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66]. 작화는 코사코프 증후군, 뇌염, 전두엽손상, 치매의 경우에 나타나며, 때로는 정상인에게도 관찰된다 [32]. 작화의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기억과 관련해서는 일화적 혹은 자전적 기억의 작화와 의미적 기억의 작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뇌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전적 기억에서만 작화가 있으나, 심한 경우에는 자전적 기억뿐만 아니라 의미적 기억에서도 작화가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에는 내용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작화인지 알지 못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말의 내용이 기괴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도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전적 기억의 작화와 관련해서 Baddeley & Wilson (1986; 1988)이 연구한 R.J.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15] [16], 그는 교통사고로 양쪽 측두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였다. 그는 '편지'라는 단어에 대하여 숙모에게 자신의 남자형제의 죽음에 관한 편지를 쓰는 얘기를 한다. 실제로는 그의 남자형제는 살아 있으므로 그의 이야기가 부적절함을 지적해 주자, 그의 남자형제가 죽은 후에 자신의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또다른 작화를 만들었다. 의미적 기억의 작화와 관련해서는 [32] Dalla Barba (1995)가 관찰한 S.D.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의 작화의 예를 들면, 그에게 달리기 경기를 해서 우승을 했는데 상으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에 붙어있는 고기 한점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왜곡이 많았다. 예를 들면, '문장 (sentence)'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높은 산의 평지 (a high mountain field)'라고 답한다.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화 중에서 특히 자전적 기억의 작화는 기억과 의식의 독립성을 보여준다. 즉, 결코 경험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하여 기억의식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작화는 앞에서 다룬, 기억수행은 보이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의식은 보이지 못하는 경우와 대비된다고 하겠다.

### III.1.2. 최면에 따른 작화

최근에 최면이 잘못된 기억의식, 혹은 기억 착각을 가져온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 [58] [82]. Schacter (1995a)가 언급했듯이 [77], 최면은 정상시보다 정신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자신의 기억으로 더 잘 받아들이게 하는 인출환경을 만들어 주어, 정확한 기억이나 틀린 기억 모두에 대해 확신감을 표현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Jacoby, Kelley, & Dywan (1989)은 People vs. Michael Kempinski (1980)를 인용하면서 최면이 잘못된 기억의식을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한다 [44] [70]. Kempinski는



살인용의자로 체포되었는데, 이러한 체포는 살인의 유일한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목격자는 처음에는 범 죄현장에서 누군가가 달아나는 것만을 보았으며, 그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면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이 모두 기억에 저장되어 있으며 노력하면 원래의 사건이 그대로 되살아 날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다. 목격자가 약간의 잠정적인 세부사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담당자는 더욱 흥미를 보이고 계속하라고 고무하였다. 나중에 이 목격자는 더 새로운 세부사항이 떠오르면서 보다 흥분되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살인자가 그 지역 고등학교인 것으로 기억하였다. 그 결과 Kempinski가 체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과 의사는 충분한 조명하에서도 25 feet가 넘으면 사람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목격자는 반쯤 어두운 상황에서 그것도 범 죄현장으로부터 250 feet나 떨어져 있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최면을 통해 실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기억의식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후최면 원천 기억상실에서 피최면자들이 자신의 기억에 대한 원천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신의 기억수행에 대한 진정한 원인이 아닌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는 현상도 일종의 작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 III.2. 일상적인 경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전에 경험했던 것으로 느끼는, 즉 그릇되게 기억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처음 와본 곳에서 언젠가 한번 왔던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처음 있는 일을 언젠가 한번 경험했던 일로 느낄 때가 있다. 이것을 기시감 (déjà vu)이라고 하는데, 실제 경험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기억착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경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기억의식은 실험실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찰된다. Johnston, Dark, & Jacoby (1985)는 지각적 유창성 (perceptual fluency)이 재인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51]. 이 연구에서 이전에 보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단어들은 학습단계에서 실제로 제시된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며, 이전에 보았다는 판단을 받은 단어는 그렇지 않았던 단어들보다 더 빠르게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유의미한 단어들이 아니고 무의미단어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더 잘 나타났다.

지각적 유창성과 재인의 관계는 이밖에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45] [83] [84]. 이러한 연구에서는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다는 친숙감 (feeling of familiarity)이 사전경험에 의해 생기는 하지만, 전혀 사전경험이 없

이도 자극지각의 유창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Lindsay & Kelley (1996)는 처리의 유창성이 그릇된 단서회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56], Roediger, Jacoby, & McDermott (1996)은 회상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74].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어린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때로는 특수한 방법을 통해 어린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아직 명백하게 수용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것이 어린시절의 성적학대 경험의 기억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사회에서 최근 6-7년 동안 성인 남녀들 (특히 심리치료를 받는 젊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잊혀졌던 어린시절의 성적 학대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보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78]. 어린시절의 기억을 회복시킨다는 방법들에는 최면, 시각화, '신체기억' (신체의 조직에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기억)에 접촉하기, 및 '빠른 목록 (quick list)' 방법 (내담자가, 인출된 생각의 정확성은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성적 학대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재빨리 적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Schacter (1995b)는 Olshe & Watters (1994), Loftus & Ketcham (1994), 및

Pendergrast (1995)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들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기억되었다는 어린시절의 성적 학대 기억이 그릇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78] [69] [57] [71]. Schacter (1995b)는 실제로 성적 학대를 받았고 나중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다시 그 기억이 회복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78]. 즉, 앞절에서도 다루었듯이 심리적 외상에 따른 기억상실이 가능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러한 기억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도 회복된 성적 외상에 대한 기억의 상당부분이 실재가 아닐 수 있음을 수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실제로 있지 않은 기억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이라고 하겠다.

### III.3. 논의

본 절에서는 기억과 기억의식 간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기억표상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억에 대한 기억의식이 존재하는 현상들을 다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뇌손상이나 최면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정상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와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기억의식이 반드시 해당하는 기억표상을 갖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기억의식은, 기억표상이

다시 활성화 된다거나 기억표상에 의식이 접근하여 나타난다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억의식에 관여하는 처리과정은 일반적으로 귀인 (attribution)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다. 기억의식을 귀인의 문제로 설명하는 입장은 Jacoby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그리고 Johnson과 그녀의 동료들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44] [45] [56] [74] [84] [46] [48]. Jacoby 등 (1989)도 주장하듯이, 기억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표상의 고유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귀인 (attribution)이라고 할 수 있다 [44]. 즉, 기억의식은 기억표상과 관련해서 혹은 그와는 독립적으로 몇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특정 경험이 기억에 의한 것으로 귀인되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많은 일상적인 정보처리가 귀인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 태도, 정서, 및 기타 내적 상태를 판단할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데, 그 추론과정은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한 귀인과정이다. 자기지각 (self-perception)이론에서는 우리가 자기자신에 대해 판단할 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와 동일한 방식의 추론과정이 작용한다고 본다 [18]. 마찬가지로 기억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인출상황에서의 귀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이러한 추론 혹은 귀인은,

Helmholtz의 무의식적 추론과 유사하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억의식에 관여하는 귀인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유창성 (fluency), 생생함, 상세함, 등을 들 수 있다 [44]. 인출상황에서 처리가 용이하고, 처리된 내용이 생생하고 상세할수록 그것은 어디선가 경험했다는 친숙감을 준다. 실제 경험에 의한 기억표상이 다시 활성화 될 때, 유창성, 생생함, 상세함 등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기억표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준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높은 수준의 유창성, 생생함, 상세함 등이 때로 기억표상에 의한 것으로 기억의식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의 현상으로 잘못된 귀인, 즉 귀인오류 (misattribution)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창성은 지각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비지각적 수준 (예를 들면, 주장, 아이디어, 또는 의미있는 행위)에서도 적용된다 [44, 398쪽]. 즉, 주어진 자극을 처리하거나 (지각적 수준), 주어진 질문에 쉽게 답이 나올수록 (비지각적 수준) 그것이 기억된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이밖에도 사회적 요구가 기억의 귀인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귀인오류를 일으켜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을 가져올 수 있다 [41]. 즉, 사회적 요구는 기억구성을 고무하거나 세심한 현실감시 (reality monitoring)를 단념시킴으로써 경험하지 않은 기억의 창출을 조장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위있는 인물의 암시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촉진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뇌손상에 따른 작화는 뇌손상이 기억의식에 관여하는 귀인과정과 관련된 처리에 장애를 가져와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특정한 기억표상의 손상 없이도 귀인과정의 장애로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기억표상 자체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분적인 기억연합의 손상으로 손상된 부분을 메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에 더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에 대한 귀인과정의 작용으로 작화와 같은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뇌손상으로 기억표상의 일부가 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기억표상을 형성하는 기억요소들의 연합이 서로 그릇되게 연결되는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면, 기억의식에 관여하는 귀인과정과 관련된 처리의 장애 없이도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기억표상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기억표상의 왜곡에 따른 경험한 적이 없는 사실에 대한 기억의식이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면에 따른 작화의 경우에는, 최면이 인출 상황에서 산출되는 항목들을 생생하고 상세하며 쉽게 산출되게 하므로 그것들을 기억된 사

건으로 귀인하기 쉽게 해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경우의 기억표상이 결여된 기억의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지각적 유창성을 통제함으로써 기억표상 없는 기억의식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등이 바로 지각적 유창성을 기억으로 잘못 귀인한 예가 되는 것이다. Jacoby & Whitehouse (1989)는 기시감을 명백하게 새로운 상황에서 잘못 귀인된 지각적 유창성이라고 보았다 [45]. 실제로는 있지 않았을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에 대한 기억회복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의 경험이 지금의 특정 증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심리치료자 (즉, 권위적인 인물)의 암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기억표상 없는 기억의식 현상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요즘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억착각에 대하여 몇가지 논의를 하여야겠다. 기억표상은 없으나 기억의식은 있는 현상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는 기억착각현상과 관계가 깊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기억착각은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억착각은 기억왜곡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억표상이 결여된 기억의식의 현상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sup>4)</sup> 여러가지 원인으로 기억표상 자체가

변형된 경우의 기억하기에 수반하는 기억의식은 특히 그 변형된 기억표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기억표상의 변형 혹은 왜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가져온다. 즉, 인출된 기억내용이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을 때, 과

연 어느 만큼이 기억의 변형 혹은 기억의 왜곡에 의한 것이고 어느 만큼이 인출상황에서 만들어 낸 것인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실제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기억의식을 갖는 것인지) 정확하게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정보처리가 구성적 (constructive)이며, 이러한 구성적 정보처리는 약호화와 인출 모두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4] [5] [6] [67], 특정 시점에서 인출된 기억이 원래의 사건과 다르다고 할 때, 그것이 약호화시에 나타난 변형인지 아니면 인출시에 나타난 변형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과연 기억착각에 속하지 않은 기억수행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sup>5)</sup>

이와같이 볼 때,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이라고 규정할 때, 주의를 요한다고 보아진다. 즉, 그것이 약호화, 인출, 혹은 둘다에서의 기억표상의 변형을 반영하는지 혹은 진정으로 기억표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상황에서

4) 참고적으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기억착각의 개념은 좀 더 정교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억착각은 지각착각 (perceptual illusion)에 상응해서 사용된다. 지각착각이 실제의 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처럼, 기억착각은 기억보고가 실제의 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각착각과 관련된 것으로 환각 (hallucination)이 있다. 환각은 존재하는 자극을 다르게 표시하는 지각착각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하게 지각하거나 (정적 (positive) 환각), 실재하는 자극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는 (부적 (negative) 환각)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볼 때, 기억에도 지각의 환각에 상응하는 개념 혹은 용어의 사용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기억현상에도 기억표상이 없는데 기억의식을 갖는 현상과 (정적 환각에 상응) 기억표상은 있으나 기억의식이 없는 현상 (부적 환각에 상응)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억환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각각 정적 기억환각 (memory hallucination)과 부적 기억환각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지금 사용되는 기억착각에는 기억왜곡 이외에 정적 기억환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적 기억환각은 암묵기억에 포함되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용어구분에서도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순수하게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의 현상과 기억왜곡의 현상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Roediger (1996)는 기억착각을 정의하면서 기억의 보고가 실제의 사건과 '심각하게 (seriously)' 다른 경우라고 수식을 붙였다고 할 수 있다 ([72, 76쪽]).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Roediger (1996)는 지각착각과 기억착각의 구분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있다 ([76]).

만들어진 내용을 기억으로 귀인하는지를 가리는데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 IV. 전체논의

앞에서 우리는 기억과 기억의식이 반드시 함께 하는 현상이 아님을 보았다. 먼저 기억이 남아 있어서 여러가지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억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았다. 다음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억내용에 대한 의식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았다. 이상의 두가지 현상은 각기 조금씩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기억표상은 있으나 기억의식이 없는 경우는 특정 연합의 손상이나 특정 연합의 해리 혹은 억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기억표상은 없으나 기억의식이 있는 경우는 특정 연합의 손상 또는 변형이나 귀인체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현상의 원인들은 다른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먼저 기억표상은 있으나 기억의식이 없는 경우도 특정 연합의 손상이나 특정 연합의 해리 또는 억압 이외에도 귀인체계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억표상이 온전하게 남아 있어서 적절한 기억수행을 하더라도 기억의식을 일으키는 귀인체계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기억의식을 갖지 못할 수 있는 것

이다. 특히 앞에서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의 원인으로 귀인의 문제를 제기한 Jacoby 등은 이러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기억표상은 있으나 기억의식이 결여된 경우는 설정된 목표가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본다. 즉, 목표가 기억하기라면 기억효과에 의한 유창성은 올바르게 과거의 기억으로 귀인되지만, 목표가 시간적 지속, 문제의 난이도, 혹은 글의 흐름에 대한 것이라면, 기억효과에 의한 유창성은 그 상황에 맞게 잘못 귀인될 수 있다 [44, 399쪽]. 앞에서 다루었던 Kunst-Wilson & Zajonc (1980)의 예에서 미리 보여주었던 다각형에 대하여 재인은 못하였지만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실제로는 경험에 의한 기억효과이지만 그것이 선호도로 나타났으므로 일종의 귀인오류라고 볼 수 있다 [55] [44, 401-2쪽]. 이와같이 볼 때, 기억표상은 있으나 기억의식이 없는 무의식적인 표절의 경우도 귀인오류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기억에 따른 유창성이 다른 원인으로 잘못 귀인된 것이다. 또한 전진성 기억상실증이나 후취면 기억상실에 따른 기억의식은 없으나 기억수행을 보이는 경우에, 자신의 기억수행에 대하여 적절한 기억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릇된 원인으로 둘러대는 현상은 귀인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귀인체계의 문제로 잘못된 귀인이 나타나 적절한 기억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만, 기억의식을 형성하는 귀인과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거나 특정한 귀인의 형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전진성 기억상실증, 해리정체장애, 및 심리적 외상에 따른 기억상실과 같은 경우의 일부에서는 기억수행에 대하여 적합한 기억의식을 보이지 않을 뿐이고 그밖의 귀인요인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기억표상은 없으나 기억의식이 있는 현상의 경우도 특정 연합의 손상 또는 변형이나 귀인 체계의 문제 이외에도 특정 연합의 해리 혹은 억압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 연합이 해리되거나 억압될 때, 작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기억을 가져오는 귀인체계가 작용함으로써 기억표상은 없는 기억의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상에서 기억의식이 결여된 기억수행과 기억표상이 결여된 기억의식을 설명하는데 적용된 여러 원인들이 모든 개별적인 현상에서 작용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드물게는 이 모든 원인이 동시에 함께 기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 중에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표상이 기억의식에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님을 보았다. 또한 기억과 기억의식의 독립성이 뇌손상이나 최면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정상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았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위하면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의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그것에 관한 기억의식(특히 일화적 기억에 대한 기억의식)을 갖는 경우는 별로 없다. 사실 일상생활의 의식경험에서 기억의식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소설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의 백일몽에서 어느 만큼이 과거의 기억에 의한 것이고 어느 만큼이 새롭게 만든 것일까. 앞에서 무의식적인 표절도 다루었지만, 어떠한 창조적 작업도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억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혹은 기억의식은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기억의식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회생활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사람, 사물, 및 사건에 대한 암묵적 기억만 있어서 그때 그때 적절한 반응을 보여도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고, 이것들에 대한 경험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필요할 때에 인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매우 제한된 행동만을 보이게 될 것이다. 사람, 사물, 및 사건에 대한 경험을 의도적으로 인출할 수 있고 그 인출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기억의식을 가짐으로써 그것들에 대하여 더 정교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해하고 태도를 형성하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미래의 행동을 계획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식은 주로 넓은 의미의 의미적 기억에 대한 기억의식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화적 기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억내용의 맥락 혹은 원천 (source)에 대한 기억 (즉, 특정한 기억내용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억)에 대한 기억의식이 역시 사회생활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기억내용의 맥락에 대한 기억의식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도적으로 인출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인출되며 인출된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도 그 경험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을 보이는 경우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나름대로의 구분 (혹은 귀인)기준을 통해 기억과 상상을 적절하게 구분 (혹은 귀인)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다. 실제의 경험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사회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자신의 상상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거나 미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절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실제

로 상상과 실제의 경험을 구분을 못하는 정신 질환자들이나 뇌손상환자들은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경우라고 하겠다. 또한 표절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임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경험을 통해 획득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올바른 기억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논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기 (self) 혹은 자기개념 (self concept)의 문제이다. 기억의식은 사회생활에서의 기본 출발인 남과 구분되는 나에 대한 의식, 즉 자기의식 (self consciousness)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바탕을 둔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사회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기억을 떠나서는 자기 (혹은 '나')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기억표상이 있고 기억수행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기억의식이 없다면, '나'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억내용의 맥락에 대한 기억의식이 없는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H.M. 등 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상당량의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고 기억수행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기억의식이 없는 관계로 기억의식이 가능한 과거기억 속의 자기로만 살아간다. 반대로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학습과 그에 대한 기억의식은 갖지



만, 과거의 기억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 속에 형성된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이다.<sup>6)</sup> Zazetzkky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기억을 어렵게 인출은 해도 그것을 자신의 기억으로 의식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신의 정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억은 자기의 정체를 결정하며, 이때 기억의식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기의 정체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억표상이 없는 기억의식은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은 부적절한 '나'를 만들 것이다. 특히 기억표상이 결여된 기억의식의 현상 뿐만 아니라 기억왜곡을 포함한 기억착각현상을 통해서 볼 때, 기억과 기억의식 자체의 오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기 혹은 자기개념의 오류 가능성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의 기억과 기억의식이 그릇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자기자신에 대한 개념 역시 그릇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Hyman & Pentland (1996)는 일생을 통해 그리고 암시에 반응하여 기억이 변화하는 측면에서 자기야말로 기억의 가

장 큰 착각 (memory's greatest illusion)일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41, 114쪽].<sup>7)</sup>

이상과 같이 볼 때, 최근의 기억과 기억의식에 대한 연구, 더 넓게는 인간의 정보처리와 의식에 대한 연구는 자기라는 주제를 다시 심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끝으로 앞으로는 Jacoby 등 (1989)도 주장하듯이 [44], 기억과 기억의식의 설명은 전통적인 기억이론의 범위를 넘어서 지각경험, 정서경험, 사회적 정보처리에서의 귀인 등의 설명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참고적으로 인지심리학을 포함한 인지과학에서는 최근에 인간을 포함한 정보처리체계의 단원성(modularity)의 주장이 매우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처리체계가 여러 구분되는 단원들(modules)로 구성되며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여러가지 정보처리를 한다고 설명된다. Minsky (1986)는 'The society of mind'라는 제목의 책을 통하여 마음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처럼 구성되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에서는 '나'란 여러가지의 조건들의 끊임없는 이합집산으로 특별히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무아(無我)를 주장한다. 이제 기억과 기억의식의 연구를 통해 자기를 구성하는 내용조차 정확하지 않고 그릇될 수 있음을 접하게 되는 것 같다. 한편 자기가 기억의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해도 이 착각은 무시할 수 없는 착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치 꿈에서 만난 괴물을 무시할 수 없듯이, 이 착각은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자기를 추구하는 동양의 전통은 오늘날의 심리학에서 다시금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7} {8}.

6) 후진성 기억상실증 환자의 경우에도 기억표상이 남아 있어서 기억수행은 있으나 기억의식이 없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이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 [1] 김문수 (1996). 학습과 기억의 생물학적 기초: 신경심리학적 개관. 인지과학, 7, 7-36.
- [2] 김미라 (1996). 단어의 반복제시와 의미 관련성이 암묵기억과 외현기억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미라와 이만영 (1996). 처리깊이에 따른 학습단어의 반복제시가 단어완성검사와 단서회상검사에 미치는 효과. 인지과학, 7, 115-134.
- [4] 김정호. (1985). 합치도 원리: 약호화 특수성 원리에 대한 대안. 행동과학연구, 7, 65-76.
- [5] 김정호 (1986). Compatibility principle model: A general framework for memory research. 학생지도연구 (덕성여대 학생생활연구소), 6, 69-103.
- [6] 김정호 (1992). Inner-Outer Compatibility Principle Model: Functionalism and Computationalism.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4, 165-177.
- [7] 김정호 (1994a). 인지과학과 명상. 인지과학, 4&5, 53-84.
- [8] 김정호 (1994b). 구조주의 심리학과 불교의 사념처 수행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 186-206.
- [9] 김정호와 김선주 (1995). 의식의 물질적 이해: 정보처리와 의식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문집 (덕성여자대학교), 2, 31-49.
- [10] 박태진 (1993). 기억과 주의의 관계: 주의수준이 암묵기억과 외현기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5, 102-123.
- [11] 박태진 (1995). 단어조각완성 점화에서 지각적 처리와 개념적 처리의 해리: 단어조각 노출시간과 완성시간이 교차양상점화, 처리수준, 생성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7, 31-56.
- [12] 이정모 (1995). 기억이론 개관. 정신건강연구, 14, 68-103.
- [13] 이정모와 이재호 (1995). 기억체계이론. 이정모 (편),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 서울: 성원사
- [1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15] Baddeley, A.D., & Wilson, B. (1986). Amnesia, autobiographical memory and confabulation. In D. Rubin (Ed.), *Autobiographical memory*. New York: Cambridge

- University Pres.
- [16] Baddeley, A.D., & Wilson, B. (1988). Frontal amnesia and the dysexecutive syndrome. *Brain and Cognition*, 7, 212-230.
- [17] Baars, B.J. (1988). *A cognitive theory of consciousn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8] Bem, D.J. (1972). Self-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6). New York: Academic Press.
- [19] Bornstein, R.F. (1992). Subliminal mere exposure effects. In R.F. Bornstein & T.S. Pittman (Eds.), *Perception without awareness: Cognitive, clinical and soci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 [20] Bornstein, R.F., & D'Agostino, P.R. (1992). Stimulus recognition and the mere exposur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45-552.
- [21] Bower, G.H. (1990). Awareness, the unconscious, and repression: An experimental psychologist's perspective. In J.L. Singer (Ed.), *Repression and dissociation: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theory, psychopathology, and health*.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22] Bower, G.H. (1996). Reactivating a reactivation theory of implicit memory. *Consciousness and Cognition*, 5, 27-72.
- [23] Bowers, K.S. (1966). Hypnotic behavior: The differentiation of trance and demand characteristic variab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42-51.
- [24] Bowers, K.S. (1975). The psychology of subtle control: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behavioral persistenc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7, 78-95.
- [25] Bowers, K.S. & Hilgard, E.R. (1988). Some complexities in understanding memory. In H.M. Pettinati (Ed.), *Hypnosis and memory*. New York: Guilford.
- [26] Christianson, S.A., & Nilsson, L.G. (1989). Hysterical amnesia: A case of aversively motivated isolation of memory. In T. Archer & L.G. Nilsson (Eds.) *Aversion, avoidance,*

- and anxiety (pp.289-310). Hillsdale, NJ: Erlbaum.
- [27] Claparède, E. (1911/1995). Recognition and Selfhood. *Consciousness and Cognition*, 4, 371-378.
- [28] Cohen, N.J., & Corkin, S. (1981). The amnesic patient, H.M.: Learning and retention of a cognitive skill. *Society for Neuroscience Abstracts*, 7, 235.
- [29] Cohen, N.J., & Squire, L.R. (1980). Preserved learning and retention of pattern-analyzing skill in amnesia: Dissociation of knowing how and knowing that. *Science*, 210, 207-210.
- [30] Cooper, L.M. (1966). Spontaneous and suggested Posthypnotic source am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Hypnosis*, 14, 180-193.
- [31] Cooper, L.M. (1979). Hypnotic amnesia. In E. Fromm & R.E. Shor (Eds.), *Hypnosis: Developments in research and new perspectives* (2nd ed.). Chicago: Aldine.
- [32] Dalla Barba, G. (1995). Consciousness and confabulation: Remembering 'another' past. In R. Campbell & M.A. Conway (Eds.), *Broken memories: Case studies in memory impairment*. Cambridge, MA: Blackwell.
- [33] Dixon, N.F. (1971). *Subliminal Perception: The nature of controversy*. London: McGraw-Hill.
- [34] Dixon, N.F. (1981). *Preconscious processing*. Chishester, UK: John Wiley.
- [35] Evans, F.J. (1988). Posthypnotic amnesia: Dissociation of content and context. In H.M. Pettinati (Ed.), *Hypnosis and memory*. New York: Guilford.
- [36] Flanagan, O. (1991). *The science of the mind* (2nd ed.). Cambridge, MA: MIT Press.
- [37] Gabrieli, J.D.E., Milberg, W., Keane, M.M., & Corkin, S. (1990). Intact priming of patterns despite impaired memory. *Neuropsychologia*, 28, 417-427.
- [38] Graf, P., Squire, L.R., & Mandler, G. (1984). The information that amnesic patients do not forget.

-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0, 164-178.
- [39] Hilgard, E.R. (1965). *Hypnotic susceptibilit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40] Hilgard, E.R. (1986). *Divided consciousness: Multiple controls in human thought and action* (Expande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41] Hyman, I.E., & Pentland, J. (1996). The role of mental imagery in the creation of false childhood memorie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5, 101-117.
- [42] Jackendoff, R. (1989). *Consciousness and the computational mind*.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43] Jacoby, L.L., & Dallas, M. (1981).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biographical memory and perceptual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0, 306-340.
- [44] Jacoby, L.L., Kelley, C.M., & Dywan, J. (1989). Memory attributions. In H.L. Roediger & F.I.M. Craik (Eds.), *Varieties of memory and consciousness: Essays in honour of Endel Tulving*. Hillsdale, NJ: Erlbaum.
- [45] Jacoby, L.L., & Whitehouse, K. (1989). An illusion of memory: False recognition influenced by unconscious per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8, 126-135.
- [46] Johnson, M.K., Hashtroudi, H., & Lindsay, D.S. (1993). Source monitoring. *Psychological Bulletin*, 114, 3-28
- [47] Johnson, M.K., Kim, J.K., & Risse, G. (1985). Do alcoholic Korsakoff's syndrome patients acquire affective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1, 22-36.
- [48] Johnson, M.K., Nolde, S.F., & De Leonardis, D.M. (1996). Emotional focus and source monitor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5, 136-156.
- [49] Johnson-Laird, P.N. (1983). *Mental models: Towards a cognitive science of language, inference, and*

- conscious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0] Johnson-Laird, P.N. (1988). *The computer and the mind*. London: Fontana.
- [51] Johnston, W.A., Dark, V., & Jacoby, L.L. (1985). Perceptual fluency and recognition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1, 3-11.
- [52] Kihlstrom, J.F., & Hoyt, I.P. (1990). Repression, dissociation, and hypnosis. In J.L. Singer (Ed.), *Repression and dissociation: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theory, psychopathology, and health*.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53] Klatzky, R.L. (1984). *Memory and awareness: An information-processing perspective*.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54] Korsakoff, S.S. (1889/1996). Medico-psychological study of a memory disorder. *Consciousness and Cognition*, 5, 2-21.
- [55] Kunst-Wilson, W., & Zajonc, R. (1980). Affective discrimination of stimuli that cannot be recognized. *Science*, 207, 557-558.
- [56] Lindsay, D.S., & Kelley, C.M. (1996). Creating illusions of familiarity in a cued recall remember/know paradigm.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5, 197-211.
- [57] Loftus, E.F., & Ketcham, K. (1994). *The myth of repressed memory: False memories and allegations of sexual abuse*. St. Martin's Press.
- [58] Lynn, S.J., & Nash, M.R. (1994). Truth in memory: Ramifications for psychotherapy and hypnotherapy. *American Journal of Hypnosis*, 36, 194-208.
- [59] Margolin, D.I., Friedrich, F.J., & Carlson, N.R. (1985). *Visual agnosia-optic aphasia: Continuum or dichotom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y Society.
- [60] Milner, B. (1965). Memory disturbance after bilateral hippocampal lesions. In P. Milner & S. Glickman (Eds.) *Cognitive Processes and the Brain*. Princeton,

- N.J.: Van Nostrand.
- [61] Milner, B. (1970). Memory and the temporal regions of the brain. In *Biology of memory*, K.H. Pribram & D.E. Broadbent (Ed.s). New York: Academic Press.
- [62] Minsky, M. (1986). *The society of mind*. New York: Simon & Schuster.
- [63] Moore, T.E. (1982). Subliminal advertisin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Journal of Marketing*, 46, 38-47.
- [64] Moore, T.E. (1985, July). Subliminal delusion. *Psychology Today*, 10-11.
- [65] Morse, R.C., & Stoller, D. (1982, September). The hidden message that break habits. *Science Digest*, 28.
- [66] Moscovitch, M. (1989). Confabulation and the frontal systems: Strategic versus associative retrieval in neuropsychological theories of memory. In H.L. Roediger & F.I.M. Craik (Eds.), *Varieties of memory and consciousness: Essays in honour of Endel Tulving*. Hillsdale, NJ: Erlbaum.
- [67] Neisser, U. (1976). *Cognition and reality*. San Francisco: W.H. Freeman.
- [68] Nissen, M.J., Ross, J.L., Willingham, D.B., Mackenzie, T.B., & Schacter, D.L. (1994) Evaluating amnesia in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In R.M. Klein & B.J. Doane (Eds.), *Psychological concepts and dissociative disorders*. Hillsdale, NJ.: Erlbaum.
- [69] Olshe, R., & Watters, E. (1994). *Making monsters: False memories, psychotherapy, and sexual hysteria*. Charles Scribner's Sons.
- [70] People vs. Michael Kempinski (1980, October 21). No. W80CF 352 (Cir. Ct., 12th Dist., Will Co., IL, unrep.).
- [71] Pendergrast, M. (1995). *Victims of memory: Incest accusations and shattered lives*. Upper Access Books.
- [72] Roediger, H.L. (1996). Memory illusion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5, 76-100.
- [73] Roediger, H.L., & Craik, F.I.M. (Ed.) (1989). *Varieties of memory and consciousnes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74] Roediger, H.L., Jacoby, D., & McDermott, K.B. (1996). Misinformation effects in recall: Creating false memories through repeated retrieval.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5, 300-318.
- [75] Schacter, D.L. (1987). Implicit memory: History and current statu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 Cognition*, 13, 501-518.
- [76] Schacter, D.L. (1989). On the relation between memory and consciousness. In H.L. Roediger & F.I.M. Craik (Eds.), *Varieties of memory and consciousness: Essays in honour of Endel Tulving*. Hillsdale, NJ: Erlbaum.
- [77] Schacter, D.L. (1995a). Memory distortion: History and current status. In D.L. Schacter, J.T. Coyle, G.D. Fischback, M.M. Mesulam, & L.E. Sullivan (Eds.), *Memory distortion: How minds, brains and societies reconstruct the pa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78] Schacter, D.L. (1995b). Memory Wars. *Scientific American*, 272, 135-139.
- [79] Schacter, D.L., Bowers, J., & Booker, J. (1989). Intention, awareness, and implicit memory: The retrieval intentionality criterion. In S. Lewandowsky, K. Kirsner, & J. Dunn (Eds.), *Implicit memory: Theoretical issues*. Hillsdale, NJ: Erlbaum.
- [80] Tulving, E., Schacter, D.L., & Stark, H.A. (1982). Priming effects in word-fragment completion are independent of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8, 336-342.
- [81] Warrington, E.K., & Weiskrantz, L. (1968). New method of testing long-term reten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mnesic patients. *Nature*, 217, 972-974.
- [82] Whitehouse, W.G., Orne, E.C., Orne, M.T., & Dinges, D.F. (1991). Distinguishing the source of memories reported during prior waking and hypnotic recall attemp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5, 51-59.
- [83] Whittlesea, B.W.A. (1993). Illusions of familiar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9, 1235-1253.

[84] Whittlesea, B.W.A., Jacoby, L.L., & Girard, K. (1990). Illusions of immediate memory: Evidence of an attributional basis for feelings of familiarity and perceptual quality.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9, 716-732.

[85] Wundt, W. (1912/ translated by R. Pintner). *An introduction to psychology*.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86] Young, A.W., & De Haan, E.H.F. (1992). Face recognition and awareness after brain injury. In A.D. Milner & M.D. Rugg (Eds.), *The neuropsychology of consciousness* (pp.69-90). London: Academic Press.